

- 과목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미론
- 이 름 :
- 아이디 :
- 과제명 : 한국어 다층적 의미장의 예를 찾아보고 도식적으로 제시하여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 서론

1. 의미장이란

의미장은 언어학에서 특정 주제를 가리키도록 의미론적으로 묶인 단어들의 어휘적 집합이다. 이 용어는 인류학, 계산기호학, 기술주석에도 사용된다.

2. 의미장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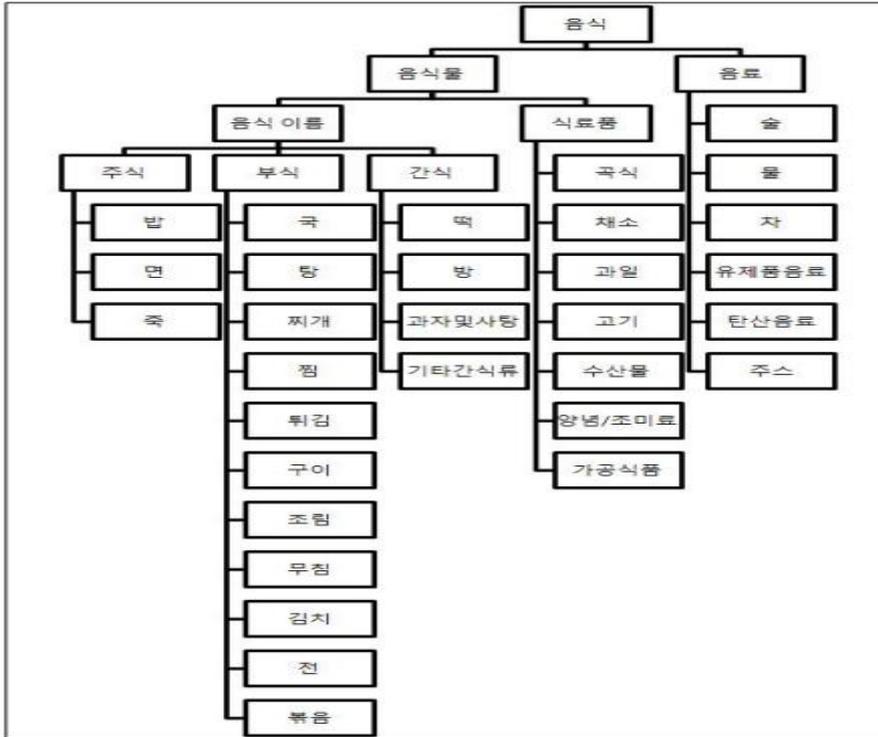
의미장 이론의 기원은 1930년대에 조스트 트리어가 선보인 의미장이론이지만 존 라이언스에 따르면 역사적 뿌리는 빌헬름 폰 훔볼트와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3. 트리어

트리어는 한 언어의 어휘 체계 속에서 모든 단어의 의미는 그 어휘체계 속의 다른 단어들의 의미에 의지하여 정의될 수 있다고 봄. 한 단어의 주위에는 그 단어와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상호 개념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개념적 친족들). 개념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어휘들의 내적 관계를 개념장이라 하고, 이들의 외적인 구체적 구현을 어휘장이라 함.

II. 본론

1.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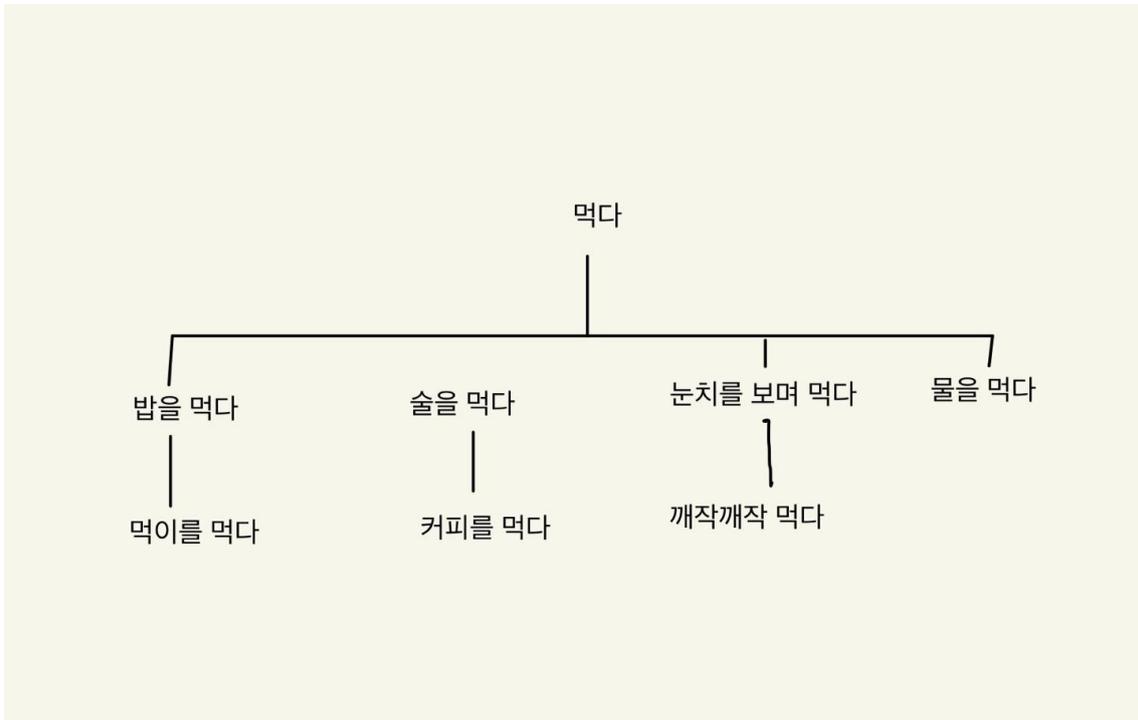
‘음식’을 일단 세부적으로 나누면 음식물과 음료로 나눌 수 있다. 음식물은 씹어서 삼켜야 하는 약간의 고체류라 하면 음료는 마시는 액체류로 나눌 수 있다.

음식물을 다시 나누면 조리를 통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음식으로써 이름이 있는가 그리고 음식물에 들어가기 위한 식재료로 나눌 수 있다.

음료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알콜이 있는지, 식수로 마시는지, 끓였는지, 우유가 있는지, 탄산을 포함했는지, 과일이 들어갔는지로 나누었다.

음식이름을 다시 분류를 하면 우리가 주식, 부식, 간식의 경우로 먹는 경우를 생각했다. 주식의 경우에는 밥, 면, 죽을 포함했고 부식의 경우 밥, 면, 죽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국 혹은 밑반찬으로 나누었다. 간식의 경우에는 주식 혹은 부식과 같은 자리에서 먹기 보다는 주식과 부식을 먹은 후에 즉 아침, 점심, 저녁을 제외한 시간에 먹는 종류로 나누었다.

2. 먹다



‘먹다’의 경우 우리가 흔히 밥을 먹다, 먹이를 먹다처럼 씹어 먹는 행위, 생존을 위해서 먹는 행위로 쓰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커피와 술의 경우 마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데 술과 커피 또한 먹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먹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행동을 묘사할 수있는데 눈치를 보며 먹다, 깨작깨작 먹다 등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을 먹다의 경우 물을 마시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오늘 물 먹었어’ (사람이 실패하다. =미역국을 먹다)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이처럼 먹다라는 단어 하나에서도 다양한 대화와 상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III. 결론

음식과 먹다라는 키워드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결국 한국어 능력이 발전할수록 단지 단어를 외우고 익히는게 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식 문화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음식을 먹다라는 단어에서 먹다라는 단어속에 관용구들을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떡, 죽 등 한국 전통 음식과 관련된 속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향상 및 여러 가지 관용구들을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1. 위키백과
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식 어휘장 학습자료 연구 -박참희 - 학위논문(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3. 한국어의미론 교안 1~7주차